



‘조르주 루오와 한국미술:시선공명’ 루오 영향 받은 작가 24명 연계전시

전남도립미술관에서 열리는 ‘인간의 고귀함을 지킨 화가 조르주 루오’ 전 연계전시 ‘조르주 루오와 한국미술:시선공명’ 전 모습.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 ‘조르주 루오’ 전에서 만나는 ‘한국의 작가들’

이중섭 ‘물고기와 노는 두 어린이’  
구본웅 ‘푸른 머리의 연인’  
김재형·박고석·이만익·손상기 등

“특히 중섭에게는 피카소의 신고전주의 태생과 루오의 강한 묵선(墨線)이 작용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중섭이는 루오를 좋아했어.” (동료화가 김병기(1966-2022)의 ‘내가 아는 이중섭’ 중)  
이중섭은 일본 유학 중 ‘동방의 루오’로 불렸다고 한다. 그의 그림도 루오의 그림처럼 선이 굵고 힘찬 울동의 표현들이 두드러졌고, 주변의 많은 화가들도 인정할 정도로 닮아있는 부분이 많았다고 전해진다.  
전남도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인간의 고귀함을 지킨 화가 조르주 루오’ 전(2023년 1월 29일까지)에서는 ‘또 하나의 전시’를 만날 수 있다. ‘베네딕트’, ‘미제레레’ 등 루오의 대표작을 감상한 후 그의 삶과 예술작품을 다룬 영상을 시청하고 나면 색다른 전시장으로 초대된다  
연계 전시로 마련된 ‘조르주 루오와 한국미술:시

선공명’ 전시이다. 전시에는 이중섭 등 24명의 작가 55점이 나왔다. 단순히 명화 전시에 그치지 않고 한국 미술과의 접점을 찾아본 기획이라는 점에서 의미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루오와의 연관성을 찾지 않더라도 한국을 대표하는 근현대작가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귀한 기회이기도 하다.  
한국 화단에서 루오는 1920-30년대 일본 미술계를 접한 미술가들에 의해 처음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연계전시에서는 1940년부터 1990년대까지 현실 참여로서의 예술가 조르주 루오와 그의 영향을 받은 한국 근·현대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전시에서는 아이들과 제주에서 보낸 짧은 생활을 그리워하는 내용이 담긴 이중섭의 작품 ‘물고기와 노는 두 어린이’ (1953-1954)를 만날 수 있으며 거친 빛질, 변형되고 왜곡된 형태, 대상에 대한 주관

적 인상 등 이수파와 표현주의 기법을 고수해온 구분웅의 ‘푸른 머리의 연인’이 전시됐다.  
또 한국 추상의 선구자로 꼽히는 한묵의 ‘여인상’, 거칠고 투박한 필치의 윤곽선과 과감한 색채가 돋보이는 박고석의 ‘백암산’, 한국적 소재를 작품에 녹여낸 이만익의 작품과 천병근의 ‘삶’ 등이 전시됐다. 그밖에 박영선·이봉상·김종식·이달주·황유업·장리석·윤중식·송혜수의 작품도 눈길을 끈다.  
지역 출신 작가들의 작품도 눈에 띈다. 광주 출신 김재형 화백은 루오와 인연이 깊다. 42년 전 조르주 루오의 숭고한 신앙과 애민정신에 감동을 받아 그의 삶과 작품을 주제로 석사 학위 논문을 썼다. 종교적 소재를 끊임없이 화폭에 풀어낸 김 작가는 전시에서 ‘엠마우스의 그리스도’ 등의 작품을 전시한다.  
또 늘 따뜻한 시선으로 약자를 바라봤던 루오처럼 ‘사회적 시선을 낮은 데에 두며 삶의 존엄성을



이중섭 작 ‘물고기와 노는 두 어린이’

은유적으로 표현한’ 여수 출신 손상기 작가의 작품으로는 ‘이별, 사후 3일’ 등을 만날 수 있다. 그밖에 배동신·강용운의 작품도 전시된다.  
이치호 전남도립미술관 관장은 “루오의 시대정신과 소재, 기법, 정신 등을 접한 우리 작가들을 조명해 본 기획으로 이번 기획전은 공립미술관이 해야 할 역할 중 하나”라고 말했다.  
월요일 휴관,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밤 9시 연장개관. 티켓 가격 일반 1만5000원, 초중고 9000원, 롯데카드 20% 할인.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베니스비엔날레 참여 전광영 작가와 협업 이세현 사진작가

31일까지 ‘한지 하우스’ 프로젝트

최고의 미술축제 베니스비엔날레가 열릴 때면 본 전시 뿐 아니라 전 세계 갤러리와 작가들이 참여하는 수백건의 전시회가 미술애호가들을 만난다. 베니스비엔날레는 이 중 단 30건에만 ‘병행 전시(Collateral Event)’라는 타이틀을 부여한다.  
종이 예술가로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는 전광영 작가의 개인전 ‘재창조된 시간들(Times Reimagined)’도 병행 전시 중 하나다. 전시는 세계적 문화 예술 후원 단체인 보고시앙 재단이 주최하고 이용우 전 광주비엔날레 대표와 세계적 큐레이터 마누엘라 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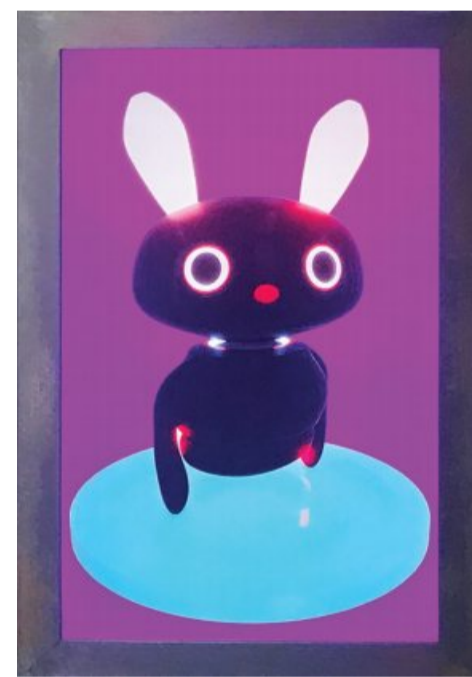
카 다지오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이 전시는 이태리 건축의 거장 스테파노 보에리 교수가 전광영 작가의 작품을 재해석한 후 전시 공간인 ‘한지의 집(Hanji House)’을 현지에서 건축해 눈길을 끌었다.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이세현 사진 작가가 전시 기획 중 하나인 ‘한지 하우스 프로젝트’에 참가, 전 작가의 작품에 영감을 받은 신작을 포함한 자신의 대표작 ‘경계(boundary)’ 시리즈 6점을 전시해 눈길을 끈다.  
지난 9일 시작해 오는 31일까지 이어지는 프로젝트에서 이 작가는 전광영 작가가 작품에 사용한 고서를 돌에 붙여 높이 던져 촬영, 그 순간을 작품에 담았다. 또한 사진 인화지가 아닌 한지에 인쇄하고 한지 하우스에 배접(裱接) 방식을 통해 작품을 전시했다. 이 작가는 5·18의 장소인 전남도청, DMZ 등 국내의 역사적인 장소를 방문, 하늘로 돌을 던진 후 그 흔적을 앵글에 담은 작업을 통해 역사에 대한 물음을 시각화해 왔다.  
이 작가는 2018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프로젝트, 광주시립미술관 중국 히말라야미술관 레지던시, 일본 코가네초 레지던시 등에 참여했다.  
이세현 작가는 “세계 각국 다양한 미술 관객들을 만날 수 있어 흥미로웠고, 한지라는 새로운 재료의 실험을 하면서 더 넓은 시선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전광영 작가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은 이세현 작가의 ‘Boundary’.

## ‘VIVA! 예술路’ 뉴노멀 시대 작품 전시

NFT 메타버스 순회전 31일까지 관선재갤러리



신도원 작 ‘Pink Rabbit’

최근 광주 예술의 거리에서는 NFT 메타버스 전시회가 잇따라 열려 눈길을 끌었다.  
‘VIVA! 예술路’ 비바뉴아트 NFT 메타버스 3차 순회전이 오는 31일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 관선재 갤러리에서 열린다.  
‘NFT 8 people’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는 8명의 작가가 참여해 NFT와 메타버스를 통해 새로운 뉴노멀 시대의 창작품을 선보인다.  
원작은 NFT거래소 오픈씨(Open sea)에서 만날 수 있다.  
남궁운이 기회를 맡은 이번 전시 초대작가는 최재영·신도원·정해영·엄정애·이동진·최순인·윙희경·성유진 등으로 회화, 미디어 아트, 종이 인형, 페인팅 퍼포먼스 등 자신의 전공 장르를 디지털로 재창조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인형작가 엄정애는 홀로그램으로 최근 세상을 떠난 남편을 재현한 ‘여보’를 선보이며 윙희경 작가는 예술의 거리에 위치한 동명의 카페를 AI로 그린 그림 ‘달정원’을 전시한다.  
정해영 작가는 드로잉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예술의 거리 상인회가 적극 지원했으며 관선재갤러리는 무료 대관으로 힘을 보탤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40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Since 1982

#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